

## 01

### 닭·오리·계란값 급등 ‘밥상물가’ 또 들쭉 구제역·AI 여파로 유통 차질...오리고기, 1년전보다 56.45% 올라



구제역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닭고기 1kg의 소매가격은 6,377원으로 전년(5,968원) 대비 6.85% 올랐다. 도매가격은 3,979원으로 전년(3,067원) 대비 29.74% 올랐고, 한달 전(3,786원)과 비교해 5.10% 인상됐다.

닭고기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도매가격은 1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란 가격도 올랐다.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6,915원으로 한달 전(6,588원) 대비 4.96% 올랐다. 도매 가격은 5,456원으로 한달 전(5,243원) 대비 4.06% 올랐다. 특란 30개의 산지 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 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리고기는 1년 전과 비교해 56.45%나 올랐다. 오리고기(20~26호) 1kg의 도매가격은 7,538원으로 전년(4,818원) 대비 56.45% 올랐다. 오리고기의 산지 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들어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5월 31일까지 농장에 이동제한 명령이 적용되면서 유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물복지가 강화되면서 하나의 우리에 키울 수 있는 마리 수가 제한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즉,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찾는 소비자들은 많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특히 계란의 경우 태풍 피해를 겪은 미국산 계란이 제때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미국산 계란을 사용하던 곳들이 모두 국내산 계란을 찾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울산원에농협 하나로마트 축산물 관계자는 “오리고기, 계란, 닭고기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며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제품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4월 1만3,200원이었던 삼계탕 가격은 지난 4월 1만4,600원까지 올랐다. 1년만에 10.61%가 오른 것이다. 오리고기(외식)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0.8% 올랐다.

무거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46)씨는 “닭고기, 계란 등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식재료들의 가격이 치솟으면 서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이어 이번엔 식재료 차례냐”고 토로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1.0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 1월 5% 대까지 증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4.7%, 3월 4.2%, 4월 3.6%, 5월 3.4% 등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이유는 전년동월 대비 석유류(-19.1%)와 농축수산물(-0.9%)의 상승폭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23.5%)와 외식(7.1%)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출처\_경상일보 www.ksilbo.co.kr

# 02

## 오리협회 장흥군지부, 성금 500만원 기부 매년 인재육성장학금 이어 저소득 가정 돕기에 힘 보태

한국오리협회 장흥군지부(지부장 김석순)가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장흥군에 기부했다.

지난 6월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리협회 장흥군지부는 해마다 인재육성장학금 등 5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도 농가들이 정성을 모아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탰다.

오리협회 장흥군지부는 오리사육하는 47농가로 구성이 됐다.

김석순 지부장은 “항상 군민과 농가를 위해 힘쓰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장흥군에 감사드린다” “지역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부한 이웃돕기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출처\_전남매일 www.jndn.com



03

### 프랑스, 올가을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작 오리 대상 시험결과 만족스러운 효과 입증...8천만개 백신 선주문



지난 1월 10일 미 일리노이주 글렌뷰의 한 농장에서 사육장 속의 닭들이 먹이를 쪼아먹고 있다. 프랑스가 올 가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프랑스 농업부가 지난 5월 26일 밝혔다.

프랑스가 올 가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프랑스 농업부가 밝혔다고 도이체벨레가 지난 5월 26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시로 인한 최대 피해국이며, 현재도 남서부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농업부는 이날 최근 프랑스 보건안전청(ANSES)의 최종 시험 결과 백신 접종이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지난달 8,000만개의 백신을 선주문했으며, 올 가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심각한 변종들을 낳고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18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2억 마리가 넘는 가금류들의 살처분을 초래하는 등 가금류 산업을 황폐화시켰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사람 사이의 전염을 피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

ANSES가 노새오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시험한 결과 백신을 접종받은 노새오리는 바이러스 전파를 더 잘 제어했고, AI에 감염된 오리과 백신을 접종받은 오리가 구별이 뚜렷했으며, 백신 접종 오리에서는 바이러스 배설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는 프랑스 세바동물건강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등 2개 회사에 오리를 대상으로 한 AI 백신 개발을



의뢰했다.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에서는 산란용 암탉을, 이탈리아에서는 칠면조를 대상으로 AI 백신 접종을 실험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결과는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_뉴시스newsis.com

# 04

## 오리가 받는 열 스트레스 낮춰 생산성 향상 연구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학원과 동물복지 축사 환경개선 검증 기대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는 지난 5월 29일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과 ‘가금의 하절기 열 스트레스 저감 및 복지 가이드 설정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천안 내 육용 오리를 기르는 축사에 송풍팬과 냉수 공급장치를 설치해 오리가 받는 열 스트레스를 낮추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됐다.

오리의 행동, 혈액, 생산성, 축사 내 깔짚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열 스트레스가 감소할 때 오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연구사 임세진)은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복지를 위한 축사 환경개선이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정순우 축산기술팀장은 “이번에 실증한 연구 결과가 천안시에는 동물복지 선진농가 육성으로, 국립축산과학원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_충청일보 www.ccdailynews.com

05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우천에도 3만여 명 참석, 성료  
아라마리나 일대 노랗게 물들인 이색 이벤트 ‘덕 레이싱’ 눈길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5월 27~28일 이틀간 개최된 ‘2023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온-오프라인으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사 내내 이어진 우천으로 사전 예약자 방문이 예상보다 줄었지만 현장을 찾아 즐긴 시민 1만여 명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챌린지 참여자를 포함하면 모두 3만여 명의 시민 참여가 집계됐다.



지난 5월 28일 경기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열린 ‘2023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덕레이싱을 관람하고 있다.

제7회를 맞이한 김포와 아라뱃길의 대표축제인 2023년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은 수상·수변 인프라를 활용, 마린-펀(Fun)-컬처의 주제로 나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아라마리나에서 펼쳐지는 수상레저체험(요/보트, 카약, 수상자전거, SUP), 덕레이스, 문화콘서트 등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우천에도 모두 안전하게 차질없이 진행됐다.

27일에 진행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우천으로 실내에서 진행됐으며, 총 150명이 참여했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실내에서 아라마리나 전경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해 와 피크닉을 즐기는 듯한 풍경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시상, 참가자 전체 통합 1명에게 수여하는 대상의 영예는 운유초등학교 4학년 박예근 학생에게 돌아갔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오승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막행사 직후 펼쳐진 ‘아라마린 문화콘서트’에는 장민호, 이석훈, VOS, 조정민 등이 출연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8일에 펼쳐진 이색 이벤트 ‘덕 레이싱’은 5,000마리의 고무오리가 기중기에서 한 번에 낙하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아라마리나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며 레이싱에 돌입한 오리 인형들은 출전한 어린이들의 동심을 동력으로 자연 유속으로 골인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가족 단위로 참가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오리를 꾸민 후 대회에 출전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레이싱을 마친 선수 오리들은 출전을 신청한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주



어저 재활용의 의미도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7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축제장을 점검하고 수상·육상 관련 100여 명의 전문 안전요원 등이 배치돼 단 한 건의 사고 발생 없이 축제를 마쳤다.

김병수 시장은 "비가 와서 아쉽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횡수를 거듭할수록 김포시를 대표하는 탄탄한 프로그램의 큰 축제로 성장시켜 갈 계획인 만큼 향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_뉴스시스 newsis.com

**포토뉴스**

06

나들이 나온 오리가족



지난 6월 3일 대전 서구 흑석동의 한 들녘에서 흰뺨검둥오리 가족이 헤엄을 치며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출처\_충청투데이 www.cctoday.co.kr

**포토뉴스**

07

덕(Duck) 레이스, 오리 모형 투하

지난 5월 28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마리나에서 열린 '2023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에서 덕 레이스(Duck Race) 참가자들의 오리 모형이 크레인 상자로부터 물 위에 투하되고 있다. 이날 열린 덕 레이스는 나무 상자에서 물 위로 투하된 오리 모형이 떠내려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모형의 소유자가 승자가 되는 이벤트 레이스다.

출처\_연합뉴스 www.yna.co.kr

